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8. 26

8월 미국 소비자심리: 엇갈린 현재와 미래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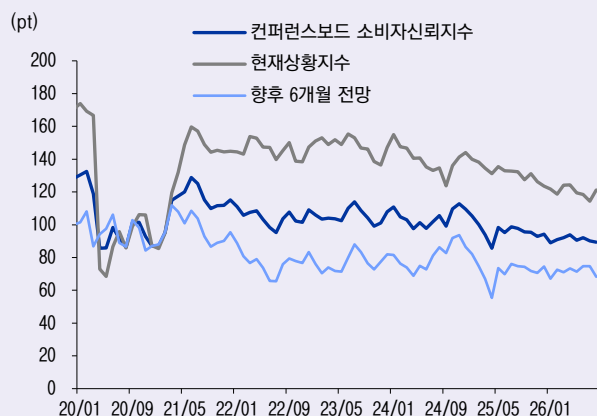
현재상황 개선과 미래 기대 약화

8월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89.4를 기록하며 예상치(90.2)를 하회했고, 7월 수치도 90.8에서 90.2로 하향조정됐다. 세부적으로 현재 경기 및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현재상황지수는 114.4→121.2로 6.8p 상승하며 4개월 만에 반등한 반면, 향후 6개월간 경기·고용·소득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74.0→68.2로 하락했다. 현재 고용여건에 대한 소비자 평가는 최근 3개월 연속 악화된 이후 반등했다.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은 24.4%→27.0%로 증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1.7%→19.5%로 감소했다. 실업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노동시장 편차는 2.7%p→7.5%p로 확대됐다.

향후 경기·고용에 대한 경계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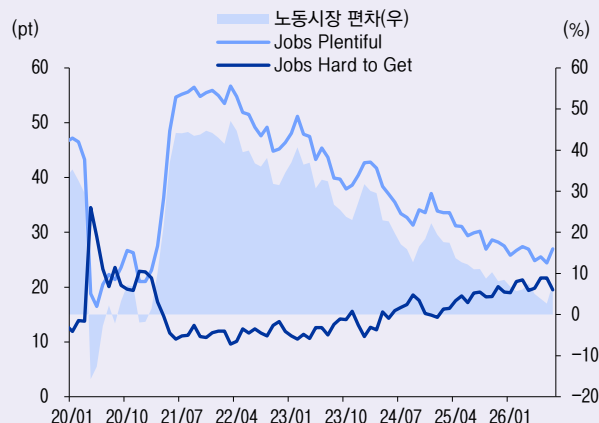
주목할만한 점은 기대지수를 구성하는 경기·고용·소득 전망이 모두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일자리 증가를 예상한 비중은 감소(16.4%→14.6%)한 반면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비중은 증가했다(25.3%→26.1%). 향후 가계소득에 대한 기대 역시 악화됐으며(가계소득 감소 예상 비중 12.6%→13.8% 증가), 기업환경 개선을 전망한 비중은 17.8%→16.8% 둔화되며 경기 기대 역시 악화되었다. 현재 노동시장 체감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에서 당장의 경기·고용 악화를 시사하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경기와 고용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기대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소비 여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1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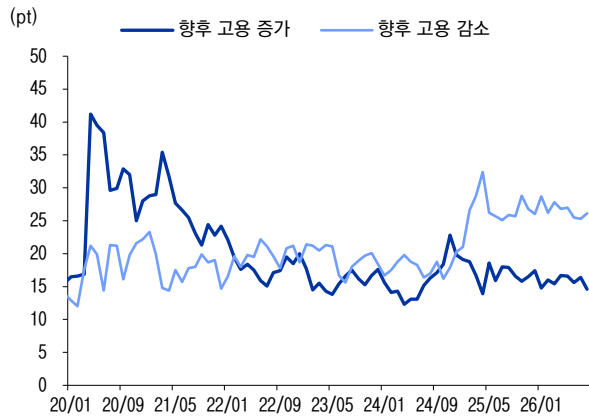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노동시장 편차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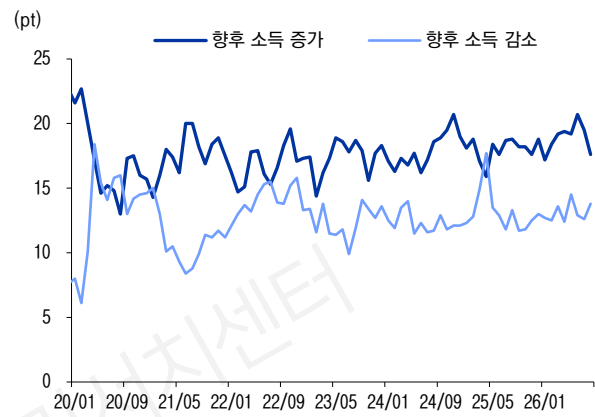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향후 고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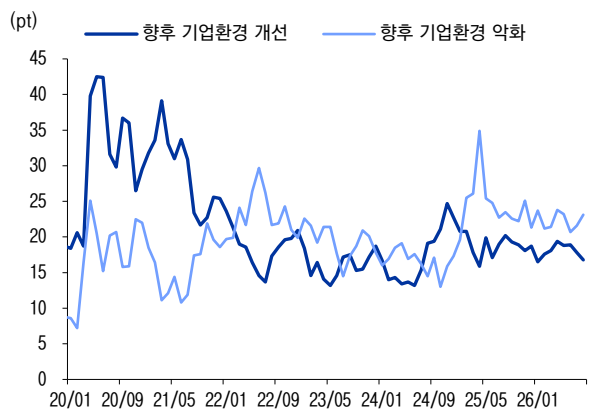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향후 소득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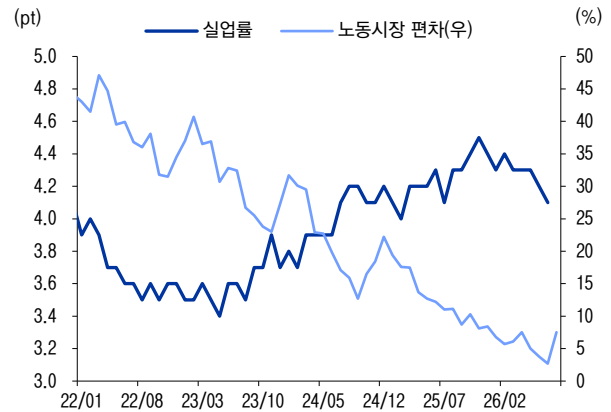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향후 기업환경 기대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실업률과 노동시장 편차 음의 상관관계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